

# 총만국 1

## 수능 10개년

### 비문학

#### 1회 2018 수능

[사회] 정부의 정책 수단 -----6쪽  
 [기술]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12쪽  
 [인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17쪽

#### 2회 2017 수능

[인문] 과인의 총체주의-----23쪽  
 [사회] 공정한 보험의 원리-----32쪽  
 [과학] 반추동물의 소화와 미생물-----38쪽

#### 3회 2016 수능

[과학] 빛방울의 중단 속도-----45쪽  
 [인문] 귀납의 논리적 한계-----49쪽  
 [사회] 지식 경영론-----55쪽  
 [인문]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60쪽  
 [사회] 민사 소송에서의 기판력-----64쪽  
 [과학]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69쪽  
 [기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73쪽

#### 4회 2015 수능

[인문] 신채호의 역사관-----79쪽  
 [사회]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85쪽  
 [사회]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89쪽  
 [예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92쪽  
 [과학]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98쪽  
 [과학]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102쪽  
 [기술] 디지털 영상의 원리와 특징-----106쪽

#### 5회 2014 수능

[인문] 토인비의 역사 연구-----110쪽  
 [인문] 심신 이론론과 심신 일원론-----112쪽  
 [예술]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117쪽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120쪽  
 [과학] 운동하는 물체의 전향력-----124쪽  
 [예술] 베토벤의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128쪽  
 [과학] 분광 분석법-----131쪽  
 [기술] CD 드라이브의 원리-----135쪽

#### 6회 2013 수능

[인문] 과학적 지식의 검증 방법-----140쪽  
 [사회] 공적 연금 제도의 목적과 운영-----144쪽  
 [예술]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147쪽  
 [과학] 이상 기체 방정식-----150쪽  
 [기술] 음성 인식 기술-----155쪽

#### 7회 2012 수능

[예술] 바로크 시대의 음악, 정서론과 정형론-----159쪽  
 [사회]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163쪽  
 [인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167쪽  
 [과학] 불확정성 원리-----171쪽  
 [기술] 소리의 공간감을 구현 원리-----176쪽

#### 8회 2011 수능

[인문] 자산의 개혁-----181쪽  
 [사회]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185쪽  
 [예술] 미학 이론으로 본 뮤지컬-----190쪽  
 [과학]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193쪽  
 [기술] 컴퓨터의 가지 자료 구조-----198쪽

#### 9회 2010 수능

[인문] 지행론의 변화와 배경-----202쪽  
 [사회] 기업 결합의 양상과 심사 과정-----205쪽  
 [예술] 음길리와 음높이를 표시하는 기호-----208쪽  
 [과학] 미생물의 종 구분-----211쪽  
 [기술] 장비의 신뢰도-----214쪽

#### 10회 2009 수능

[인문] 집단 수준의 인과-----219쪽  
 [사회] 창조 도시의 동력과 창조 환경-----222쪽  
 [예술]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224쪽  
 [과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227쪽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의 원리-----229쪽

## N회독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1회 2018			
2회 2017			
3회 2016			
4회 2015			
5회 2014			
6회 2013			
7회 2012			
8회 2011			
9회 2010			
10회 2009			

## 전체 정답

<b>1회</b>				
1.①	2.⑤	3.①	4.④	5.③
6.②	7.②	8.⑤	9.④	10.⑤
11.③	12.②	13.③		
<b>2회</b>				
1.②	2.④	3.⑤	4.⑤	5.③
6.④	7.⑥	8.①	9.④	10.⑥
11.④	12.①	13.③		
<b>3회</b>				
1.④	2.⑤	3.⑤	4.①	5.⑤
6.⑤	7.③	8.③	9.③	10.②
11.⑤	12.①	13.①	14.①	15.③
16.⑤	17.⑤	18.②	19.④	20.②
21.③	22.③			
<b>4회</b>				
1.④	2.④	3.③	4.①	5.②
6.①	7.⑤	8.④	9.②	10.②
11.⑤	12.④	13.①	14.③	15.①
16.③	17.②	18.④	19.③	20.② 21.③
<b>5회</b>				
1.①	2.③	3.⑤	4.③	5.②
6.②	7.⑤	8.⑤	9.⑤	10.①
11.②	12.③	13.②	14.⑤	15.④
16.①	17.⑤	18.③	19.④	20.④
21.④	22.⑤			
<b>6회</b>				
1.⑤	2.②	3.④	4.③	5.①
6.⑤	7.①	8.④	9.③	10.⑤
11.⑤	12.②	13.③	14.③	15.④
<b>7회</b>				
1.③	2.④	3.④	4.②	5.①
6.④	7.⑤	8.①	9.④	10.⑤
11.①	12.⑤	13.③	14.⑤	15.③
<b>8회</b>				
1.⑤	2.⑤	3.①	4.③	5.④
6.③	7.①	8.①	9.③	10.③
11.③	12.②	13.⑤	14.③	15.①
<b>9회</b>				
1.④	2.②	3.①	4.⑤	5.③
6.②	7.②	8.⑤	9.④	10.①
11.③	12.⑤	13.③	14.⑤	15.④
16.①				
<b>10회</b>				
1.④	2.⑤	3.④	4.⑥	5.④
6.④	7.③	8.①	9.②	10.①
11.①	12.②	13.⑤	14.⑤	15.③

## N회독 방법

N회독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다. 어떤 공부든지 한 번 보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지 마라. 특히 국어 비문학은 최소 3개월, 보통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 1회독으로 그친다면 교재를 30%밖에 공부하지 못한 셈이다. 최소 2회독, 권장 3회독으로 교재를 100% 체화하여 비문학 고수가 되길 바란다.

### 1회독 (가볍고 신속하게)

처음은 모든 지문과 문제를 가볍고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쉽거나 어려운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일단 진도를 빼는 것에 초점을 두자. 진짜 공부는 최소 2회독부터이므로 1회독은 비문학과 친해지며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적나라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면 된다.

#### \*제한 시간 내에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자

-수능 국어 시험의 관건은 긴장감과 시간 관리이다. 초기부터 문제 풀이의 시간 제한성을 필히 고려해야한다

#### \*빠른 진도를 위해, 채점 후 틀린 문제의 해설만 보자

-깊은 분석은 2회부터, '이래서 틀렸네' 정도의 느낌만 챙기고 신속히 넘어가자.

#### \*의문점은 물음표나 메모를 하고 넘어가자

-물음표가 많을수록 메모가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좋다. 2회독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재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자.

### 2회독 (하나하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문 요약과 문제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과 문제 하나하나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하자

-자신의 요약과 해설의 요약을 비교하여 빠진 부분을 보완하자.

#### \*시간제한 없이 선지 정/오답의 근거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기억나도 상관이 없다.

#### \*모든 문제의 해설을 꼼꼼히 살펴보자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어떤 해설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3회독 (체화하여 응용하고 써먹기)

2회독의 과정을 반복하되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되며 체화된 해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2회독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되 부족하거나 틀린 문제에 중점을 두자.

\*정/오답을 판단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타 지문&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설을 떠올리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선지의 법칙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 정답의 확률을 알고 문제 풀이의 감각을 더한다. 5개의 선지 중 임의로 선택한 선지의 산술적인 정답 확률은 20%이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확률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 대립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 간에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1 대 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1 대 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1 대 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대립의 양상은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평가 요소이다. 이에 익숙한 출제자는 문제 제작 시,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토대로 <대립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긍정)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부정)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흠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논리 문제> 해결에 관해 (①: 긍정적 ⇔ ②: 부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 된다.

### [2014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① 항성 α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있음)
- ③ 항성 β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없음)
- ⑤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있음)

<검은 선들>의 유/무로 선지 (④↔②,⑤) 1대2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부정)
- ②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긍정)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부정)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부정)

선지의 일부를 수량 혹은 크기의 긍정 / 부정으로 분류해 보면, 선지 (③↔①,④,⑤) 1대 3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1의 비율인 ③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 2. 공통 선지의 법칙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발문** 문제에서, 선지 간에 **최대 공통점(같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언어(국어) 시험에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서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같은) 맥락 오답을 만들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를 토대로 <공통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의: '최선 긍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 [2017 수능 비문학]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선지 ④, ⑤는 핵심어(콰인, 명제)가 공통된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④, 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2016 수능 비문학]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선지 ④, ⑤는 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다. 그래서 지문과 문체에 상관없이 ④,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3. 비교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가 나오거나 '~에 비해~하다'의 형태라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만 고려할 것)

[2017 수능 비문학]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 **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산성vs중성)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암묵지vs명시지)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4. 보기-선지의 법칙

한 시험(전 영역)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 중 1~2개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보기-선지 대응성만으로 답이 된다.

- \*긍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
- \*부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동떨어진 선지가 정답

[2011 수능 비문학]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보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회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 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2009 수능 비문학]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보기〉

-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 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5.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A, B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6. 선지 오류의 법칙**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국어 지식 혹은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오류가 확실히 있거나,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 이런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된다.**

**[2017 수능 비문학]**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 법(고지 의무)을 위반한 이(보험 가입자)가 손해 배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배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012 수능 비문학]**

<보기>에서 ㉠~㉢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겠군. (정답)

→ 상식적으로 각각의 귀에서 발 바로 아래까지의 거리는 거의 동일한데,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릴 수가 없다.

**수능 10개년 비문학 적용**

	대립 선지	공통 선지	비교 선지	보기 선지	1항목 후순위	선지 오류
2018		OO			○	
2017		OO	○		○	○
2016	OO OO	OOO	OOO	○		
2015	OOO	OOO	OO		○	
2014	OOO	○	OO	○		
2013	OOO		○		○	
2012		○	OO	○		○
2011	○			○		
2010						
2009				OO		

**[수능 문학 및 평가원 적용 분석은 해당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지의 법칙 활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실전에서 지문 분석하기도 바쁜데 선지의 법칙을 따질 여유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시험 시간을 1초라도 줄이고 정답을 찾을 확률을 1%라도 높이려는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살피 볼만하다. 이 법칙들은 문제 풀이의 감각을 더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체화해서 실전에서 반드시 써먹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교재를 통해 가볍게 보는 정도로 그치고 실전에서 이것들이 불현듯 생각난다면 그때 참고하자. 물론 시간이 없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험의 법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플러스 팁 ★**

**<정답을 조금 더 빨리 만나는 방법>**

다음의 문제 유형들은 반드시 선지를 (③→④→⑤→①→②) 순으로 검토한다.

\* <보기>가 제시된 3점짜리 문제

-----

- \*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부정형도 마찬가지)

**<지문 독해 메모 및 표시 방법>**

문제 풀이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문에 적절한 표시는 필수!

- : 주체나 대상, △ : 반대 맥락,
- > : 같은 맥락 혹은 결과, / : 흐름 끊기
- \* 요소나 서술의 키워드는 밑줄이 적절
- \* 비례나 비교 표현 등 빈출되는 항목은 물결무늬가 적절

(주의: 지문의 핵심 판별을 위해 지문 표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저자의 당부**

- \* 적극적으로 N회독을 하자
- \* 모르면 질문하고 해결하자
- \* 수능 날까지 기출을 곁에 두자
- \* 매일 2~3지문 씩 꾸준히 공부하자
- \* 지문 요약과 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 \* 실력 향상은 최소 3개월 후이나 기대하자
- \* 실력 향상을 위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자
- \* 1회독만 할 생각이라면 바로 2회독 과정을 시작하자

# ※1~5, <정부의 정책 수단>

①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②**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③**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④**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⑤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⑥**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⑦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⑧**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⑨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 정책 수단의 특성

② 1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2외국 통화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3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4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5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6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 환율과 오버슈팅

③ 1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2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4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5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6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7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8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 경제 충격에 따른 장기·단기 환율 조정 과정

④ 1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2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한다. 3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한다. 5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6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7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로 수렴된다.

### 환율의 오버슈팅 과정

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⑥**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⑦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 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⑧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⑨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⑩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 다양한 미세 조정 정책 수단

#### ★문단별 요약★

①

#### <정책 수단의 특성>

- \*강제성: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 \*직접성: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 \*자동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 \*가시성: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②

- \*환율: 외국 통화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면, 경제 주체들은 위험에 노출됨.
- \*오버슈팅: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  
(by 물가 경직성, 불안 심리)
- \*물가 경직성: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③

#### <경제에 충격이 발생→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

- \*물가: 단기-경직적, 장기-신속적 조정
- \*환율: 단기, 장기-신속적 조정
-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오버 슈팅 초래
- \*장기적인 환율: 외국 물가/자국 물가=균형 환율

④

#### <구매력 평가설과는 다른 움직임→오버슈팅 발생>

- \*국내 통화량↑→물가 경직→실질 통화량↑→금리↓→투자의 기대 수익률↓→투자 자금↓→자국의 통화 가치↓→환율↑
- \*통화량↑ 효과: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의) 예상 환율 상승+ (금리↓→자금의 해외 유출에 의한) 환율 상승
- \*환율의 오버슈팅: 추가적인 상승 현상→(물가의 경직성에 비해)
- \*실질 통화량과 유출 자금의 복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

⑤

#### <단기의 환율이 급등락 or 균형 환율 수준과 장기간 이탈→미세 조정 정책 활용>

- \*[강제성↓]: 정보 공개 or 불필요한 규제 축소  
→(물가 경직성 완화)
- \*[직접성↑]: 환율 변동→수입 필수품의 세금 조절→내수 위축  
방지→오버 슈팅 부작용 완화
- \*[직접성↑]: 환율 변동 보험 or 보증 제공→환율 급등락 대비

★지문 보충 해설★

1  
2  
네 가지 측면으로 (문단내 혹은 문단별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하면서 읽어나가야 한다.

2~8  
개념이 나열될 경우, 개념 간의 대립적 성질이 없다면 피정의항에는 동그라미 정의항 키워드에는 밑줄을 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자. 그렇다면 문제 풀이 시 해당 개념과 관련된 것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2  
3  
'그러나',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3]-3,4 [4]-1도 마찬가지

7  
'이',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5,8 [4]-4, [5]-5,6도 마찬가지

3  
1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 나가자.

3~4  
<물가-환율>처럼 대립적 항목이 정리되면 주의 깊게 살펴보자.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3,4+5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에 토대가 되는 일이다.  
[4]-2도 마찬가지

6  
\*문장이 길다면, 첨표에서 흐름을 끊어주자.  
[4]-3,7도 마찬가지  
\*(외국 물가/자국 물가=균형 환율)처럼 공식이 정리되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2~4  
상·하 화살 표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6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처럼 비례 관계가 정리되는 내용은 선지 정/오 판단에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5 2~4  
(2~들 수 있다.) (3한편~4또한~)에서, 문장 첫머리에 제시된 '한편', '또한'을 통해 문장을 묶거나 혹은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강제성↓, 후자는 직접성↑ 경우에 해당)

★인강 연동 (40:26~)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1. <사회>

#이해 #최솟의 조건 #문제 풀이 TIP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6%	66%	9%	9%	9%	7%

◆정답 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1)<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2)<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3문단]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지만 2)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1)

◆오답 풀이

②

\*환율이나 주가 등 1)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러한 2)<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문단]

\*경제 변수(금리)의 하락 폭 비교:  
(물가가 '신축') < (물가가 '경직') by 오버슈팅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제 변수가 지나치게 하락되는, 오버슈팅을 촉발하는) '경직'적인 경우 1~2)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

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1)<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2)<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3문단]

※단기 조정 속도 비교:  
(‘물가’는 경직적) < (‘환율’은 신속적)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단기>에는 ‘경직’적인 <물가>의 조정 속도1)보다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환율>의 조정 속도2)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④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2)<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3)<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4)<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오버슈팅의 정도는 ‘물가 경직성에 비례’) [4문단]

※물가가 경직적→시장 금리 하락→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2,3)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직접적으로는 <시장 금리>에, 근본적으로는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1)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2,3) (결국엔 물가가 경직될수록) 이에 비례하는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4)

**평가원 이의제기**

\*선지 4번은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곧 (1) '이미 오버슈팅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 통화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기간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시장 금리가 반등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복귀 속도가 빨라져 오버슈팅의 정도는 악화되고,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의 수렴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선지 5번 역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이란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2)의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⑤는 시간 경과(걸리는 기간)에 관련된 말이 있지만 선지 ④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초기의 상황만을 가정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2)<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3)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4)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5)<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4문단]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1)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의 <지속성>이 커지기2)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5)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4) 걸리는 기간이3) 길어질 것이다.

★문제 풀이 TIP!

선지의 각 첫머리에 해당하는 말(상황, 주체)에 적절한 표시를 하고, 관련 지문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관건.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3문단]
- ②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3문단]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4문단]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4문단]

★최선의 조언★

다른 오답 선지들에 비해, 정답 ①의 판단 과정은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①을 정확하고 확실히 정답으로 판단했다면 신속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실전에서 똑같이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머지 선지까지 다 검토하고 ①을 결국엔 정답으로 판단한 수험생은 선지 ①만을 확실하게 검토한 수험생에 비해 시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모든 선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국엔 오답을 골라낸 이들은 정말 최악의 경우이다. 다른 선지들을 과강히 보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정확한 검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답 확신을 가져야 한다.

2. <사회>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5%	4%	5%	6%	80%

◆정답 ⑤

\*1)<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

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수록 자동성 ↑) [1문단]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1) 때문에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사전적 의미의 <자동성>하고 '기존 활용'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문에 사용된 용어는 전문어로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없이 제시된 의미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1)가 낮기 때문에 <강제성>도 낮다.

②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1)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1문단]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1)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낮다.

③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강제성>과는 상관없으므로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1)보다 <강제성>이 낮다.

☞<강제성>이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문을 보지 않고도 선지 ①, ③의 부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굳이 지문 검토를 하지 않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시험 시간을 1초라도 절약할 수 있다. 실전에서 1초, 1초를 모아 킬러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면 틀릴 문제도 건져낼 수 있다.

④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

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1)<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2)<직접성>이 낮다.

[1문단]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1)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낮다. 2)

3. <사회>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Q&A #최선의 조건 #조사 하나의 차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7%	37%	6%	17%	17%	23%

◆정답 ①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1)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2)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3)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4문단]

<보기>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4)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5)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 [4문단]:

(통화량↑ 유지) 물가 경직→실질 통화량↑→시장 금리↓1)→투자의 기대 수익률↓→투자 자금 유출2) or 투자 자금 유입 위축→통화 가치↓→추가 환율↑(추가적인 상승 현상의 오버슈팅↑3)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1) B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해외(A국)로 빠져나가2) B국에 대한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수 있다.3) 하지만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A국은 (B국으로 유출된) 투자 자금이4) 다시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B국으로 유출된 투자 자금으로 인한) 급등된 환율5) 다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을 살펴봐도, <투자 자금의 유입>이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없다. 즉, <투자 자금의 유입>은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원인)에 없다.

**Q&A**

\*선지 ①의 의미가 중의적인듯한데, 오버 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B국으로 해석한다면 적절한 거 아닌가요?

발문을 다시 잘 살펴보자.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오버 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A국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출처자는 이를 노리고 선지 ①을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라하지 않고 그냥 <오버슈팅의 정도>라고 애매하게 설정했다. 발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자. 발문은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다.

**◆오답 풀이**

②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1)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문단]

<보기>

2)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

③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균형 환율) [3문단]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2)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균형 환율)로 수렴된다. [4문단]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1)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2)

♣조사 하나의 차이가 의미를 바꾸다

\*시장의 조정: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됨

\*시장을 조정: (정부와 같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함

**★최심층의 조언★**

실전에서 위와 같은 미세한 문법적 판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국어는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교재를 통해 다양한 풀이와 지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익힘감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씩 고득점을 향해 다가가자.

④

<보기>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1)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2)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1)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2)

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내수가 위축됨을 알 수 있음) [끝문단]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선지 ②~④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①,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4. <사회>**

#보기 제시 #3점 #그래프 #최심층의 조언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6%	6%	18%	12%	5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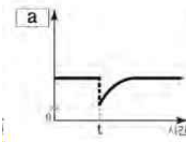
◆정답 ㉠

㉠(실질 통화량) ㉡(시장 금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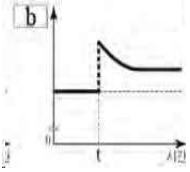
c a b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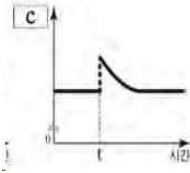
다음 그래프들은 [4문단]에서 <국내 통화량이 t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t에서 일시적인 급락 후 원래로 복구됨 (㉠시장 금리)



t에서 일시적인 급등 후 원래보다 높아짐 (㉡환율)



t에서 일시적인 급등 후 원래로 복구됨 (㉢실질 통화량)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1)㉠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실질 통화량과 ㉠시장 금리는 반비례)~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3)㉡환율은 상승한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4)㉢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5)㉡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4문단]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6)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3문단]

▶ 각 그래프에서 t점 이전과 이후(복구=동일? 상승or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풀이의 관건.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가 1)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 4) 때문에 그래프 c에 대응된다. 이에 반비례하는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가 2)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 5) 때문에 그래프 a에 대응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일시적으로도 상승하고 3) 장기적으로도 상승하여 6) 원래 수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프 b에 대응된다.

★최선의 조언★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어 독해력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 각 그래프에서 t점 이전과 이후(복구=동일? 상승or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풀이의 관건인 셈.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많은 그래프를 접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정보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수능 국어는 국어 독해력이 바탕이 된 종합적인 사고 및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공부하자.

평가원 이의제기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중요한데 보기에서는 t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변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말하지만 t시점 이후에는 국내 통화량 이외의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통제 변인에 대한 설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국외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외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상황을 해당 그래프와 대응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의 개념, 특성에 해당하는 문맥을 따라 이에 가장 근접한 그래프에 대응시키면 된다. 그래서 t시점 이후는 시간이라는 변수와 문맥 상황으로도 충분히 정답 ㉣가 정당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보기>에서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 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그래프 모두 '시간'이라는 같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또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모호하여 경제 변수가 그래프의 변화가 줄어드는 시점에 도달하였는지의 유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이하하다>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프가 모호하여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특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선지 ㉣를 정답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사회>

#사례의 적절성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7%	7%	6%	67%	12%	8%

◆정답 ㉢

⇒<미세 조정 정책 수단>으로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는 없다.

◆오답 풀이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1)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2)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3)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4)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

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끝문단]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sup>3)</sup>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sup>2)</sup>한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sup>4)</sup>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의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up>1)</sup>

**평가원 이의제기**

\*선지 ①에서 '외환 손실'은 '외화량 감소'를 뜻하며, 외화의 가치인 '환율의 상승'을 야기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 수출 기업에게 긍정적인 현상인데 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다. 특정 주체가 아닌, 경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환 손실'이 부분적으로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오버슈팅을 일으켜 전반적인 경제 주체들을 위협에 노출시키기에 이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6~9,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① 1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3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4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5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낮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높다. 6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데이터, 정보량, 엔트로피의 개념**

② 1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3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4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5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6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7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소스 부호화**

③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2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5송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6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7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8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채널 부호화**

④ 1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2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3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4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5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6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7송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선 부호화**

**★문단별 요약★**

①

-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
- \*부호화 과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
- \*데이터: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집합
- \*정보량: 기호 발생을 인지할 때 얻는 정보의 크기
- \*기호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 \*엔트로피의 최댓값: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②

- \*송신기에서의 기호 부호화 변환 과정: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 \*소스 부호화: 기호를 0과 1로 변환→데이터 압축
- \*엔트로피: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평균 비트 수가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송된 기호가 원래의 기호로 복원됨)
- \*엔트로피 부호화: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
- \*허프만 부호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

③

- \*채널 부호화: 채널 잡음→오류 발생→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오류를 검출, 정정
- \*삼중 부호화: 0→000, 1→111  
-0이 과반수인 경우: 0으로 판단→오류 정정  
-1이 과반수인 경우: 1으로 판단→오류 정정



\*부호율=(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④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전기 신호로 변환 후 채널을 통해 전송.  
\*선 부호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  
\*자동 부호화: 부호의 비트가 0→전압을 유지  
부호의 비트가 1→전압 변화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

★지문 보충 해설★

- ①  
1  
‘송신기’, ‘채널’, ‘수신기’처럼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가 나오면 각 구성 요소별로 글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 3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 읽어도 좋다.
- 5  
비례 관계는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자주 활용된다. (화살표시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자)
- ②  
1  
부호화의 종류별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2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처럼 기술 지문에서 과정을 예시하면 과정의 순서에 유의하자. 순서를 바꾸거나 주체와 대상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가 출제되기 마련이다.
- 4,7  
‘이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중’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③-4,6도 마찬가지]
- ③  
5  
‘즉’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준다.
- 7  
수식이 정리되는 내용은 문제할 될 가능성이 높다.
- ④ 5  
실전에서 첫 독해시, 예시가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전체 흐름과 핵심을 파악한 뒤 문제 풀이 시, 그때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다.

★인강 연동 (1:21:33~)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6. <기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4%	① 7%	② 74%	③ 7%	④ 7%	⑤ 5%

◆정답 ②

\*전송된 1)<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문단]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1)

◆오답 풀이

①

\*1)<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2문단]

⇒영상 데이터는 <소스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③

\*채널 부호화는 1)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한 정보이다.1)

④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1)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1문단]

\*3)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3) 마찬가지로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 영상은2) 전송할 때에도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1) 이때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

⑤

\*1)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이다.1)

7. <기술>

#이해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8%	4%	68%	9%	12%	7%

◆정답 ②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평균 정보량(엔트로피)가 최댓값을 갖는 경우는 2)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이다. 1) 그래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다른(각각 1/4, 3/4) 경우의 평균 정보량은 최댓값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1)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 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③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 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④

\*이때 1)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2)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곧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이다. 1) 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대>가 되기 2)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로 동일할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도 최대가 된다.

⑤

\*어떤 1)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2)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3)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1)

<발생 확률 1/4, 3/4의 엔트로피>의 정보량: 3/4, 1/4

<발생 확률 3/4, 1/4의 엔트로피>의 정보량: 1/4, 3/4

⇒ 기호들의 발생 확률(1/4, 3/4 & 3/4, 1/4)이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두 기호 집합의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동등하고 이에 따른 정보량도 동등하다. 그렇다면 평균 정보량의 값이 3) 동일해지며 이에 따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도 같아진다. 2) 굳이 평균 정보량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8. <기술>

#평가원 이의제기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5%	18%	10%	8%	9%	55%

◆정답 ⑥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2)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 <과반수 비트에 해당하는 숫자로 판단>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3)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3문단]

⇒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 1) 이중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어 011이 되면 1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부호화된 000을 1로 판단한다. 2) 그래서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오류가 정정되지만 3)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평가원 이의제기**

\*001을 예를 들면 만약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시에 두 번째에 있는 0과 마지막에 있는 1이 오류가 나서 010으로 수신하면 똑같이 0으로 판단하니 오류가 정정되는 거 아닌가요?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1) 001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문단]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2)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을)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4문단]

⇒<선 부호화>가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2)하는 것은 <송신기>에서 이루어진다.1)

②

\*1)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그중 하나인 2)<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2문단]

- 1)<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 2)<발생 확률>과 <비트 수>는 반비례
- ☞<정보량>과 <비트 수>는 정비례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③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잉여 정보>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것이지,1~2)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1문단]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1)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3문단]

$$1)부호율 = (\text{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 \div (\text{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기호=비트)를 추가하면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율은 1보다 작아진다.

**9. <기술>**

#이해 #3점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10%	7%	15%	43%	25%

**◆정답 ④**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보기>

3)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비’=10)

⇒날씨 ‘비’의 부호인 10을3)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된다.1) 이를 <차동 부호화>할 경우, 순차적으로 (전압 변화+전압 변화+전압 변화+전압 유지+전압 유지+전압 유지)가 된다.2) 이에 따라 기준(첫)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평가원 이의제기**

\*지문에서는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추론 방식으로 4번 선지를 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분석되며, 이것은 11로 ‘눈’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지문에서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각각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부호 0110을 양의 전압을 기준 신호로 삼아 0일 때 전압 유지(→양), 1일 때 전압 변환(→음)된 결과이다. 그래서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 ④는 <삼중 반복 부호화>에서 오류가 검출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 ④가 적절하려면,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할 때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런 논리라면, 국어 시험의 모든 지문과 문제에 어떤 현상이나 원리 과정이 기술될 때, 예외나 오류를 관련지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에 서술된 것은 <오류나 예외가 일어나지 않음>을 전제한다. 즉, <오류나 예외>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에 맞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일이 일어남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선지 ④도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 일반적인(정상적인, 오류나 예외 없는) 진행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기준 신호 양을 0으로 놓게 되면 <음음음양양양>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낱씨 ‘비’의 부호인 10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되고 여기에서 기준 신호는, 첫 신호에 해당하는 1이다. 기준 신호를 0으로 놓을 수 없다.

\*4번 선지에는 데이터를 기호 (0, 1)로 바꾸는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과 2번 선지 모두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보기>에서도 낱씨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부호화를 시행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4번 선지는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 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엔트로피 부호화를 가정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의 참 여부 여부를 떠나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선지가 됩니다.

↳ [3문단]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제시된 것처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의 개념 특성에 <엔트로피 부호화>과정이 전제되어 있어 굳이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 여부를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문에서 <기준 신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부호부터 마지막 부호까지는 전압의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지만 부호화의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기준 신호 체계에 따라 시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서 0이 양으로 변환된다고 해서 1 또한 양으로 변환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부족으로 인해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 [4문단]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를 통해 <기준 신호>는 부호의 첫 번째 신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기준 신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론으로 선지 ④가 적절하다는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차동 부호화 과정이 반드시 앞에서 뒤로 진행된다는 근거가 지문에 없습니다. 지문에서 든 예시는 0110 즉 앞뒤 순서를 바꿔도 0110입니다. 그러나 4번 선지에서 묻고 있는 데이터의 해당 부호는 비대칭이므로 정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추론은 송신의 과정이 뒤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배경지식을 중학교 교과과정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가정과 기술’, ‘정보’ 과목에서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기반한 엄밀한 풀이가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수능 시험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라서 일일이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반하는 상황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문제를 풀자.

◆오답 풀이

①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3)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비트 수=기호의 개수) 이때 기호 집합의 4)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보기>

낱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5) 각 낱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6)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각 부호는 00, 01, 10, 11로 6) 각각의 비트 수는 동일하게 2개이고 3) 평균 비트 수도 2개이다. 이때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인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2로 4) 각 낱씨의 발생 확률이 모두 같기 1, 5) 때문에 엔트로피 2가 최댓값으로 2) 더 커질 수는 없다.

②

<보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맑음:00, 흐림:01, 비:10, 눈:11)

※01(흐림)10(비)00(맑음)01(흐림)

⇒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낱씨 데이터 ‘흐림비 맑음흐림’은 ‘01100001’로 바뀐다.

③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1)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3문단]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110001>에서 1과 0이 과반수, <101100>에서도 1과 0이 과반수이므로 서로 같은 날씨로 판단한다.1)

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보기>

3)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선지 ⑤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날씨를 ‘흐림(01)’로 판단했다는 것은 전송된 부호의 특정 날씨가 ‘흐림’이라는 의미이다. ‘흐림(01)’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000111>이 된다.1) 이를 <차동 부호화>하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000111>은 <유지, 유지, 유지, 변화, 변화, 변화>이기2) 때문에 <양, 양, 양, 음, 양>의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흐림’이 아닌 다른 날씨일 것이지) ‘흐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어는 기출이 진리요  
N회독은 필수다

※10~13,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1)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2)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3)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4)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5)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2) 1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2) 갈릴레오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의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3)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목적론에 대한 비판

3) 1)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2)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목적론을 비판한 이들을 비판

4) 1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2) 이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3)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물질론과 환원론을 반박하는 아리스토텔레스

5) 1)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2)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목적론의 의의

★문단별 요약★

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 (by내적 본성)  
→방해가 없다면, 목적이 실현되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음)

2)

<목적론에 대한 비판-자연물도 ‘이성’有>  
\*갈릴레오: 목적론은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베이컨: 목적에 대한 탐구는 과학에 무의  
\*스피노자: 목적론은 자연에 대한 이해 왜곡 (but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만이 ‘이성’有)

3)

<목적론 비판에 대한 반박>  
\*볼로틴: 근대 과학은 ‘자연에 목적 없음’을 제시하지 못함  
\*우드필드: 목적론의 옳고 그름 확인 불가→목적론을 거짓으로 볼 수 없음

4

- \***물질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
- \***환원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살아있는 생명체=죽은 물질)
- \***엠피데클레스**: 물질적 구성 요소를 통해 자연물의 본성을 모두 설명 가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 자연물이 물질로만 구성×, 본성의 물리·화학적 환원×)

5

- \***목적론의 의의**: 자연물의 존재 및 운동 원리(이유)를 탐구하는 출발점이 됨

★지문 모충 해설★

1

1~2

<문고+답하기>의 구성으로 화법이나 작문 상황에서는 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서두를 집중하게 한다. 비문학에서 서두에 이런 구성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화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몸을 푸는 단계이므로 썩 스치듯 읽어내자. 하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구성이 나온다면 4번째 문장처럼 ‘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3

‘그러나’, ‘그러나(하지만)’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2]-4, [3]-3, [4]-3,4도 마찬가지]

4

\***피정의향(목적론)**은 물론, 인문 지문에서 인물명(아리스토텔레스)이 나온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키워드(목적, 내재적 본성)에는 밑줄을 긋자.

\*‘본성’을 통해 이와 대립적인 어휘인 ‘이성’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의 대립항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 사선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적절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6

다른 인물명이 나와도, 같은 인물명이 나와도 일단은 계속 동그라미를 해두자. 이는 인물에 따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시 신속하게 근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2

\*인문 지문에서 인물명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키워드에는 밑줄!

1

<해석 주의>

\***목적론**은~**비판**에 직면: **목적론**에 어떤 허점(단점, 문제점,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 **비판**을 받음.  
(목적론이 무엇을 비판×)

2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좋다.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4

‘그러나~아리스토텔레스는~’처럼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전 내용과는 반대의 흐름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 한다.

3

1

‘일부 현대 학자들’처럼 인물명이 아니더라도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단체에도 동그라미를 쳐두자.

2

‘이’, ‘이런’,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2,4도 마찬가지]

3

‘거짓~없다’처럼 <부정+부정>이 조합 문장은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부정+부정>은 결국엔 <긍정>을 나타낸다.

4

1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지문에 초반 혹은 중반이 나타나면, 시대별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이 좋겠지만 ‘17세기’와 같이 지문 후반에 나타나면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질론**’, ‘**환원론**’처럼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어휘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두자.

10.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논지 전개 방식 #비난\_비판 #끝문단에 주목 #비교 #평가 기준의 척도 #평가원 이의제기 #시대 구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2%	3%	2%	5%	8%	82%

◆정답 ⑥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그러나 이

런 비판과는 달리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하지만 3)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5)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문단]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고2~3)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4) 의의를 밝히고 있다.4)

▶‘~에 대한 의의’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므로 끝 문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끝문단 2문장]: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목적론의 의의)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16 수능) 전개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문단 끝문장]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정답☆)

◆오답 풀이

①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1)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2)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물질론’(환원론): 오직 물질로만 구성○  
↔‘목적론’(아리스토텔레스): 오직 물질로만 구성×

⇒두 이론의 대립적인 내용은 있으나1~2) 각각의 장단점이 비교된 것은 아니다.

☞<환원론>은 <물질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하면 되고 지문에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목적론>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견해, 생각, 주장은 모두 <목적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비교>는 <대조>와는 달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자.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평가원 국어 시험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상의 장단점’이 거론된 선지는 대부분 부적절한 선지에 해당한다.

②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있지만1~2) 절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절충 방안은 두 대상의 주장(특성)의 일부를 덜고 일부를 각각 조합한 것이다.

③ [정답 선지의 근거 지문 참고]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는 것2~3)은 있지만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평가원 의의제기**

\*목적론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증 후 환원론이라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환원론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혹은 거짓을 확인하는 과학적 경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목적론>과 대립적 성격을 가진 것일 뿐이지, <목적론>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④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2문단]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4문단]

특정 이론(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은 시대순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한정된다.

**\*시대 구분**

중세: 9~16세기, 근대: 17~19세기, 현대: 20세기~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선지 ③,⑤에 '비판'과 '검토'가 공통된다.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11.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헛갈림 주의 #견해 #이해 #Q&A #야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2%	1%	94%	2%	1%

**정답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1)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자연물은 본성적임)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자연물이 운동을 함, 곧 운동의 주체는 자연물임)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3)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자연물)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본성적 운동의 주체인 자연물은1)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Q&A**

\*<본성 실현>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다른 거 아닌가요?

철수가 선한 목적으로 아픈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철수는 <선한 목적 실현>을 행한 것이지 <선함 실현>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선한 목적 실현>을 통해 <선함 실현>이 되는 것처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을 통해 <본성 실현>도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1)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기에1) 인간이 아닌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②

그(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1)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1) 때문에 자연물에 해가 될 수 없다.

④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1) 즉 '본성'적 목적을 타고 났으니 낙엽의 운동도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선지 ②,④]에서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모든 자연물'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적절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다.

⑤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1문단]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본성>에 의해 야기된다.

\*야기: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헛갈림 주의!**

(A:원인=내재적 본성, B:결과=자연물의 본성적 운동)

\*A가 B를 야기함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A가 B를 불러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선지 ③,⑤에 (키워드 비중이 가장 높은) '본성적 운동'이 공통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정답 ☆)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12. <인문>

#논의 #비난\_비판 #문제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5%	2%	95%	1%	1%	1%

◆정답 ②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또한 2)<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3)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1~2)

지문 3)은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 이로 인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2)<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비판함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함=목적론을 옹호함) 3)이런 맥락(목적론 옹호)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

적한다. [3문단]

⇒<갈릴레이>는 <목적론>이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하지 않아서)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1) 그리고 <볼로틴>은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맥락을 따른 것이지2~3) <목적론>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ㄱ.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③

\*1)<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2문단]

\*일부 현대 학자>들은, 3)<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4)<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5)<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지문의 큰 흐름

[2문단] 근대 학자(베이컨): <목적론> 비판  
[3문단] 현대 학자(우드필드): <목적론> 거부 못함

⇒<교조적 신념>은 <목적론>을 비판하기 위해, 근대 사상가들의 <기계론적 모형>과 관련된 것이지1,3)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관련)한 것은 아니다. <베이컨>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사상가에 해당하지만1~2) <우드필드>는 <목적론>을 거부하지 못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4,5)

④

\*1)<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2문단]

\*이런 맥락에서 2)<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문단]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1) 했고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

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2)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⑤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1)<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2문단]

\*또한 2)<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1) 때문에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이는 <스피노자>이다. 하지만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만 할 뿐이다.2)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문제 풀이 TIP!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 [2문단]에서 <갈릴레이>와 <스피노자>의 부적절함이 먼저 발견되면, <볼로틴>은 검토 없이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한다.

13. <인문>

#보기 제시 #3점 #지문\_선지 간의 변형 #문제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2%	6%	84%	3%	5%

◆정답 ③

<보기>

창발론(마이어)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 1)마이어: 구성 요소로 생명체의 특성을 예측(설명) 불가
- 2)아리스토텔레스: 구성 요소로 생명체의 본성(특성) 설명 불가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1~2)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

-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특성을 예측할 수 없음>
-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대로>

-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특성들은 예측할 수 없음>

★비문학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법이 그리 많지도 명쾌하지도 않다. 위와 같은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을 익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나올 때마다 잘 익혀두자.

◆오답 풀이

①

<보기>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피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를 반박했고2)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1)는 <마이어>의 이론은 <엠피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와는 대립을 이룬다.

②

<보기>

1)<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2)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3)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3) <마이어>만이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1)

2)로 인해 1)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자. ‘나는 아침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었지만 배탈이 난 것은 아니다’에서 배탈이 나지 않아도 우유를 먹은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④

<보기>

그(마이어)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1)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2)〈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1~2)

⑤

<보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1)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환원론 부정)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2)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부정한다.1~2)

★문제 풀이 TIP!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 1회 끝

항상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점수는 오른다

## ※1~4, <과인의 총체주의>

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3)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4)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 과학적 지식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입장

② 1)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3)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4)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5)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6)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인의 입장

③ 1)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2)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단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단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4)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6)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7)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단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8)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과인: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구분 불가능

④ 1)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2)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3)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4)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6)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7)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8)그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과인: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상정

⑤ 1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총체주의(과인)의 특징과 한계**

**지문에 적절한 밑줄과 도형 표시를 꼭 해라  
독해&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단별 요약☆**

- ①
  - \*지식: 경험×(수학&논리적) / 경험○(과학적)
  - \*가설(과학적 지식의 후보)→예측→경험(관찰, 실험)  
→정/오 판단
  -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  
-예측이 맞을 경우만 (논리실증주의자)  
-예측이 틀리지만 않으면 됨 (포퍼)
- ②
  -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 (가설+기존의 지식+조건) 필요
  - \*총체주의: (가설+기존의 지식+조건)의 전체 지식  
→예측→경험→시험의 대상이 됨
- ③
  - <논리실증주의자&포퍼>
  - \*분석 명제: 경험× (수학&논리적)  
ㄱ.동어 반복 명제  
ㄴ.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것
  - \*종합 명제: 경험○ (과학적)
  - <과인>: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 구분을 부정  
(순환론: 분석 명제→동의적 표현→필연성→분석 명제)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 구분은 근거 없음)
- ④
  - <과인>
  - \*중심부 지식(경험 총독×):  
-견고함, 수학/논리학  
-경험과 관련 있으면서 멀리 떨어짐  
-수정 시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
  - \*주변부 지식(경험 총독○):  
-참, 거짓 쉽게 변화  
-수정 시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
  -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모두 수정의 대상
  - ▶지식의 변화: 개별적 지식의 누적×
- ⑤
  - \*총체주의의: 실용성 인정→결정적 반박 피함→가설 수용  
(비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명백히 분석 명제에 해당)

**지문 요약은,  
비문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

**★인강 연동 (00:55~32:10)**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지문 보충 설명☆**

- ①
  - 1 \*<논리실증주의자&포퍼> 모두 동일한 입장으로, 지식을 (경험 관련×/경험 관련○)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논리실증주의자-경험 관련×/포퍼-경험 관련○)이 아니다. 또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객관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논리실증주의자&포퍼>의 지식을 이해하면 안 된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는 지식을 (객관성vs주관성)이 아닌, (경험 무관vs 경험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 \*첫 문단 첫 문장부터 인물이 두 명 등장? 대개 지문의 첫 문단은 구체적인 핵심 화제를 잡아내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면 되지만 첫 문장부터 인물이 두 명이 제시되면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거나 예측해 봐야한다. 특이한 것은 <포퍼>는 개인 인물이지만 <논리실증주의자>는 사상을 같이 하는 인물 집단이다. 일단 이 둘을 구분했다는 것을 통해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즉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문장은 서로의 공통점을 진술했지만 어디에서인가는 차이점이 나올 것임을 염두에 놓고 다음 문장을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 \*대립 서술은 (경험과 무관, 경험에 의존)처럼 키워드 다음 부분까지 밑줄 치는 것보다, 키워드 오른쪽에 ○,×로 표시하는 것이 뚜렷이 인식된다.→(경험×,경험○) [③-1, ④-1도 마찬가지]
  - \*인물별로 입장, 견해, 사상 등이 구분되어 나오기 마련인 인문학 지문에서 인물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논리실증주의자&포퍼>가 한 묶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당연히 공통점이 서술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2
  - \*첫 머리의 <그중>? 이전 내용이 추상적, 포괄적이었다면 이번 문장은 그의 일부분이며 구체적, 한정적이다. 즉, 구체적인 화제로 향하는 흐름을 이끈다. 내용은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라서 새로운 것 없는 진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치자.
- 4
  - [문제로 가공되기 딱 좋음]
  -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이 맞거나 /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예측이 맞다면?

(논리실증주의자vs포퍼) 둘 다 가설의 새 지식 추가 ○

-예측이 틀리다면?

(논리실증주의자vs포퍼) 둘 다 가설의 새 지식 추가 ×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다면?

포퍼만 가설의 새 지식 추가 ○

\*한 문장에서 비교(논리실증주의자vs포퍼)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오답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1

문단 첫머리의 <하지만>과 같은 반대 접속어가 사용된 문장은 이전 문단의 핵심과는 반대로 흘러갈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이전 내용의 핵심을 추론 혹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다. →(과인이 아닌 다른 누구, 즉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만으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 가능)

\*누구의 입장이고 생각인지 점점 헷갈린다? <과인>이라는 새 인물이 등장하고 기존 인물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물명 자체가 내용적으로 혹은 형식적(문단 별 혹은 문단 내)으로 구분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럴 때는 앞으로 인물명(→키워드)이 나올 때마다 표시(네모 혹은 동그라미)를 해두면 누구의 진술인지 혼돈 없이 정리가 된다.

2~3

\*예시가 어렵다? 실전에서 첫 독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과 키워드 파악이다. 이때, 핵심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예시 내용은 슬쩍 보거나 아예 건너뛰어도 괜찮으니 너무 꼼꼼한 독해에 집착해서 멘붕이 오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첫 독해를 끝내고 문제 풀이 시, 예시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그때 꼼꼼히 봐도 충분하다. (단, 문단의 핵심을 예시와 결부하여 바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핵심 자체가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시 자체가 쉽게 이해된다) 예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시 다음에 나오는 내용(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4~6

\*각 문장의 첫 머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로부터'는 앞 내용을 점점 정리 및 결론 내어 핵심을 뽑아내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두자.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커져 선지의 정/오 판단에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4~6의 경우, 2~3의 예시 내용을 점점 정리 및 결론 내어 핵심을 뽑아내기 때문에 예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지문 전체의 맥락 및 핵심 파악에 지장은 없다.

6

문장이 길어 복잡할수록 서술어(시형의 대상이 됨)에 해당하는 주체(개별적인 가설, 전체 지식) 및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별적인 가설, 전체 지식>이~시형의 대상이 된다

<과인>은~총체주의를 제안한다

3

1

\*1-1의 내용을 재 언급하여 심화한 것. 첫 문단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슬쩍 봐도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시 <논리실증주의자&포퍼>가 등장? 이제부터 <논리실증주의자&포퍼> vs <과인>의 양상임을 염두에 두고 혼돈되지 않게 잘 정리해야 한다.

4

※전자와 후자, 헷갈림 주의!

\*그런데 후자(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가능 한 것-'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동어 반복 명제-'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Q&A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주어진 지문만으로 왜 '~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수능에서 제시된 지문 자체는 원문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라서 특정 문장에 대한 맥락이 더 있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국어'와 '한국어'를 예를 들어,

<나는 국어를 좋아해>=<나는 한국어를 좋아해>이겠지만

<나는 국어 교사가 될 거야>≠<나는 한국어 교사가 될 거야>이다.

<국어> 교사는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한국어> 교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의적 표현(국어, 한국어)이더라도 그 둘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 둘이 항상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면 <필연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7

ㄱ.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인 성인 남성'이 서로 <환원> 가능한 이유는 '총각'과 '미혼인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 →(환원 가능: 동의적 표현에 의존)

ㄴ. <동의적 표현>의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연성>이 필요함

ㄷ. 필연성을 갖춘 <동의적 표현>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

그런데, <필연성>이 '경험과 상관없이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분석 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결국엔 <분석 명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 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필연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오류를 범함.

※<순환론>에 대한 보충

포퍼: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같은 명제야.

과인: 왜?

포퍼: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과인: 왜?

포퍼: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서로 바꾸어도 필연적으로 의미에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같은 명제야

과인 : 왜?

포퍼 :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기 때문이지.

과인 : 왜?

철수: A는 B랑 동일해.

영수: 왜?

철수: A는 B는 의미가 똑같으니까.

영수: 왜?

철수: A는 B는 동일하니까 의미가 똑같지.

영수: 왜?

☞결국엔 동일한 물음과 동일한 답이 계속되는 오류를 범함

Q&A

\*필연성이 왜 분석 명제에 의존하나요?

☞필연의 개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으로 경험과 무관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한 개념인) 분석 명제에 의존한다고 본다.

8

긴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의 첫머리가 <따라서>라면 조금은 반갑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맥락 파악의 핵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핵심(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 구분×)도 아주 단순 명쾌하다. 이런 핵심에는 좀 더 뚜렷이 인식되는 물결무늬 표시가 어울린다.

4

1

\* (중심부~vs주변부~)처럼 대립적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 제시된 내용은 둘의 차이점을 예측 및 정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해석 주의!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주체는 '과인'이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자&포퍼'이다. '과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는 것>이다.

(☆문장의 길수록 주제와 서술어를 잘 호응시켜야 한다!)

7~8

<그래서>, <그리하여>로 시작되는 후반부의 흐름은 앞의 내용

을 정리 및 결론을 내어 새로운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8에서 <~주장한다>로 끝맺으면 해당 인물(과인)의 입장을 뚜렷이 알 수 있다.

8

부사어 중 '모두', '절대로', '꼭', '반드시' 등이 포함된 내용은 부적절 선지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쉬우므로 주의에서 물결무늬 표시를 해주자.

지문: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적절 선지: 중심부 혹은 주변부 지식 중 한 가지 대상만 수정됨 ×

5

1~2

\*한 문단이 두 문장(총체주의 장점+단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체주의 특성을 진술하는 글의 전체 맥락상) 당연히 앞 문장의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정/오 판단에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2

\*<~법칙처럼>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은 문장에서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설명 넘어가도 좋다.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나, 'A가 아닐 수가 없다'(→반드시 A이다)와 같이 <부정+부정=강한 긍정>의 표현은 꼭 수형생을 헛갈리게 한다. 헛갈리지 말고 <~처럼>이후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총체주의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총체주의는~하지 못해 비판 받는다)

1. <인문>

#답변\_질문 #두 인물의 공통 입장 #지문\_선지 간의 변형

#최선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2%	9%	72%	10%	6%	3%

◆정답 2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1)<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2)<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포퍼>와 ㉡<과인> 둘 다 <경험>을 통해 가설을 시험한다(1~2)고 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다.

결국엔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와 ㉡<과인>의 공통점을 물어 보는 문제로, **두 대상의 차이점 서술이 대부분인 비문학 지문에서 공통점이 나온다면 정답이 될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눈여겨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1)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개별적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2)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기1)** 때문에 <개별적 누적>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2)** 때문에 <개별적 누적>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문-선지 간의 변형 형태를 살펴보면,**  
(지문: 하나씩 지식으로 추가=개별적 지식의 누적)  
=(선지①: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

**★최선의 조언★**

위와 같은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을 자주 눈여겨보면, 선지의 정/오 판단 시간이 빨라진다. 비문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문제 풀이 양치기로는 한계가 있다. 한 문제, 선지를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패턴이나 양상을 잘 살펴야 문제 풀이의 감을 높일 수 있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1문단]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2)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것1)**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인>은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하기2)**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답변할 수 있다.

④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1)<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하지만 ㉡<과인>은 **2)<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예측>을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2)**고 보기 때문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1)<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2)이(수학적-과학적 지식)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의 관련성에 따라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른 종류로 구분하기1)**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구분을 부정하기2)**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최선의 조언★**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익숙한 수험생이 위 문제와 같은 발문을 만나면 당황해서 아까운 시험 시간 몇 초를 그냥 날려버리는 일이 있다. 발문은 당황스러워도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 ㉠과 ㉡의 공통점만을 지문에서 찾으면 끝! 그리고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바꿔볼 수 있다. (발문의 ‘아니오’를 선지의 부정형으로 대입하여 제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지 않는다.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없다.→(정답)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같다.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는 더 헛갈리고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평소 공부 시에는 정답을 찾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문의 첫 문제는 복잡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다.

2.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특성 바꿔치기 #출제자의 속임수  
#특징 바꿔치기 #최선의 조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67%	①	②	③	④	⑤
	16%	5%	7%	67%	6%

◆정답 ④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그런데 후자가 1)<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원인: '동의적 표현 / 결과: '분석 명제')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2)<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3)<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1)하고, 다시 이(동의적 표현)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2),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3)한다고 본다.

☞지문 2~3)은 '의존'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 있어 쉽게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지만 1)은 '의존'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은 고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의적 표현>→'전자'로 환원→<분석 명제>

<분석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동의적 표현>에 있기 때문에 <분석 명제>는 <동의적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의적 표현'이 없다면 '분석 명제'도 존재할 수 없음)그래서 <분석 명제>가 <동의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의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A(결과)+B(원인) → A는 B를 통해서! → A는 B에 의존

◆오답 풀이

①

\*1)<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2)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예측이 맞거나 /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3)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2)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3)되며 예측이 맞을 경우는 <논리실증주의자>의 주장1)이다.

★출제자의 속임수★

두 학자의 주장을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선지 ①을 설정한 경우인데, 지문에서 주장, 견해, 입장 등이 나오면 해당 주제(학

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포퍼는 <예측이 틀린다면>,~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되지 못함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 <예측이 맞을 경우>  
→예측이 맞거나 /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A하지 않는 한, B할 수 있다> 문장 구조의 이해  
아빠가 화내지 않는 한, 게임 할 수 있다.

→아빠가 화내면, 게임 할 수 없다.  
→아빠가 화내지 않으면, 게임 할 수 있다.  
→아빠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게임 할 수 있다.

②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1)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문단]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총각은 총각이다."라고 환원 가능1)하게 한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2)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2)<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로 지식(분석 명제&종합 명제)을 다르게 구분한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1)이므로 <관찰과 실험의 의존성 여부>로 지식을 다르게 보고 있는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이다. <과인>은 지식(분석 명제&종합 명제)의 구분(→다름)을 부정하는 입장이다.2)

▶지문에 A, B 두 대상과 그 특징이 나타나면 이 둘의 특징을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는 반드시 나온다.

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1)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2)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3)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 <과인>은 <동어 반복 명제>가 성립하기 3) 위해서는, 두 대상의 동의적 표현(1)을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2)

◆누구의 말이나 생각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3문단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과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여기서부터 3문단 끝까지 다시 ‘과인’의 판단에 해당)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문단]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핵심어(과인, 명제)가 공통된다.

- ④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정답)
- ⑤ 과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최שמ의 조언★

긴 지문에 문제의 선지마저 길다. 이런 조건에서 지문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는 정말 최악이다!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안구 운동을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정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남들보다 신속함이 더해지기 위해 평소에 연습과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 시험 때 어떤 긴장이 있는 조건에서도 순간적으로 발휘된다. 지문과 선지가 길수록 단순화하고 큰 흐름으로 먼저 바라보자.

- \*문제의 선지는 과인(③~⑤)과 타인(①~②) 구분된다.
- \*지문에서 1문단을 제외하고 모두 과인의 입장이 나온다.
- \*통계적으로 내용 일치형 문제는 ①, ②에 정답 분포율이 낮아 ③번부터 보는 것이 좋다.

\*공통 선지의 법칙으로 ④, ⑤를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다.

3. <인문>

#입장 #평가 #3점 #유용한 팁 #지문\_선지의 대응 양상  
#최שמ의 조언 #Q&A #끝문단이 중요하다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1%	5%	5%	14%	14%	61%

◆정답 ⑤

- ④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⑤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③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런데 1)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2)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총체주의>는 3)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4)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젠가 그와 같은 5)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6)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문단]

\*<총체주의>의 입장: ‘반박’이 있더라도 3) ‘가설’ 수용 가능! 6)

\*<총체주의>의 입장을 선지 ⑤와 관련지어 보면, ⇒ 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1) 즉 ④ <가설>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있더라도 3) ③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 2, 5) 으로 ④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고 할 것이다.

◆선지와 지문의 대응성 정리,

- \*④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 결정적 반박 1)
- \*③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 반박을 피하는 방법 2, 5)
- \*⑤를 받아들일 수 있다. → 가설 수용 6)

◆오답 풀이

①

- ④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⑤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므로 1)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2)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문단]

⇒ 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1)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2) 그래서 ④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② [정답 지문 참고]

⇒ 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1) ③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 2)는 실용적 필요 4)에 따라 달라진다.

③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이렇게 1)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2문단]

⇒ ㉡ <예측>은 ㉠ <가설>과 ㉢ <전체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1)된다.

④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런데 1)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2)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 ㉡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2) ㉡ <예측>은 ㉢ <전체 지식>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1)한 것이다.

◆ 지문-선지의 대응 양상

- \* <주변부 지식> & <경험>의 충돌  
→ <전체 지식의 주변부> & <경험>의 충돌

★ 최색의 조언 ★

비문학 실력의 근본 원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독해력이지만 짧은 수험 기간 동안에 이를 쌓아 올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문-선지의 대응성 양상을 눈에 익혀두는 것이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줄 유용한 방법이다.

Q&A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가 꼭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지문을 보면 과인은 가설+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가설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해당 지문의 문장을 잘못 해석했다. <가설+전체 지식>이 아니라, 가설도 포함한 <전체 지식>이다. 즉 전체 지식 안에 가설도 포함되어 가설과 전체 지식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 (전체 지식: 가설뿐만 아니라~모두 포함)

★ 결론단이 중요하다!

결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몰으면 이번 문제처럼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문단에 있다!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 \*글쓴이가 다른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4.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비판\_비난 #비판 문제의 부적절 선지 유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7%	17%	9%	9%	9%	57%

◆ 정답 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1)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2)과인('총체주의'의 입장)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3)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4문단]

⇒ <총체주의>의 입장인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1)고 하면서 서로 같은 종류라고 말한다.2)

그렇다면 같은 종류이니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든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든 전체 지식의 변화도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3)고 말한다.

이는 두 지식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에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선지 ⑤의 비판은 적절하다.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 (부정적)
-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잘못의 원인 혹은 대안을 말함  
→ (긍정적)

◆ 오답 풀이

① \* <총체주의>의 입장을 강화!

\*이렇게 1)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